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로 시간여행 떠나요”

내달 4-6일 회진항 일원서 풍어제·12척 해상 퍼레이드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판옥선 노젓기 등 볼거리 ‘풍성’

“2024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장흥군 회진면 회령진성과 회진항 물양장 일원에서 열린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12척의 판옥선! 회령포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4일, 정유재란과 마하수 장군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만선기원 풍어제, 12척 해상 퍼레이드,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퍼레이드, 해군 제3함대 군악대 식전 공연 행사로 이어진다.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은 회령진성에서 출발해 회진면 물양장 주무대까지 회진면 시가지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순신 장군과 수군, 민초들이 전쟁에서 승리해 입성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식에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영상을 음악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선조고서 전달식 및 회령포 결의 퍼포먼스, 대북타고 출정식이 진행되고 축하 공연에는 흥지운, 강민, 목비, 이지원 등 인기 가수 출연 공연도 펼쳐진다.

축제 2일차에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이어진다.

오후 1시부터 회진항 앞 해상에서 장흥 회령포 판옥선 노젓기 대회가 열리고, 이후 장흥군 문화예술인 공연, 회진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회령포 가요제 예선 등 보다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회령진성 역사투어’, ‘회령포 골든벨’, ‘신디 매직 버블쇼’ 등 회령포 역사교육과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회령포 가요제 결선과 폐막 EDM파티가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자랑스런 장흥의 역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라며 “명량해전 대승리의 전초지 역할을 한 장소인 회령포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민을 넘어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장흥군이 명량해전 전초지 역할을 한 회령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회진면 회령진성과 회진항 물양장 일원에서 '2024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퍼레이드(왼쪽)와 이순신 12척의 판옥선을 인수받은 회령포에서 재현한 해상 퍼레이드 모습.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명량해전 전초지 역할을 한 회령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회진면 회령진성과 회진항 물양장 일원에서 '2024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퍼레이드(왼쪽)와 이순신 12척의 판옥선을 인수받은 회령포에서 재현한 해상 퍼레이드 모습. (장흥군 제공)

‘화순의 재발견’ 新관광명소 찾기 프로젝트

외국인·인플루언서·가족·장애인 등 직접 짠 코스 활용 취향별·맞춤형 여행 제안...모든 여정 지도 형태로 배포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화순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화사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사로 프로젝트’는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여행자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화순 여행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해 취향별·맞춤형 여행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외국인 그룹 여행에 이어 이번 2차 팸투어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4명의 인플루언서 그룹이 1박2일 화순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각자의 계정 특색을 살려 화순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재단은 이들의 홍보 역량을 재단 SNS와 연계해 화순의 숨은 여행 명소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팸투어는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화순에 대해 알고, 여행하고 싶은 곳을 직접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플루언서들은 ‘만연산자구 산림공원’, ‘수만리 바우징원’, ‘수만리커피’ 등 만연산의 자연 경관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연둔리 숲경이’, ‘성안 벽화마을’ 등 콘텐츠 제작에 아름다운 화순 전경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선택했다.

또한 선선한 날씨를 즐기며 야외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산뜨락’과 에스포레소 성지로 알려진 ‘카페 그레이어’ 등을 방문해 화순의 맛을 알렸다.

‘화사로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가족 그룹 캠핑 여행과 장애인 여행가 그룹 총 2번의 투어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은 사진과 영상 등으로 기록된다.

재단은 올해 사업이 종료된 후 모든 여정을 여행안내 지도의 형태로 모두에게 공개·배부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hct11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화순군이 ‘1만원 주택사업’ 등을 통해 젊은층 유입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재단에서도 과급효과를 늘리기 위해 놀자리를 지속 개발함으로써 젊은 관광객 체류 증대 및 생활인구 전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기자

구례군, 2024 양성평등주간 행사

여성친화도시 구현 목표·양성평등 사회 실현

구례군은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례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도의원 및 군의원을 비롯해 여성단체회원, 각 읍·면·이장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구례’라는 주제로 기념식, 축하공연, 장기 자랑 등이 펼쳐졌다.

여성단체별 화려한 퍼포먼스 입장식에 이어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및 기념사가 진행됐고, 부대행사로 구례군 가족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홍보부스

운영, 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 ‘올림픽 꿈지락’ 및 자활센터 생산품 전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작품 전시 등이 열렸다. 특히 구례군 출신 가수 임현주의 축하공연과 색소폰 연주 공연은 이번 행사를 더욱 뜻깊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최경옥 구례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구례군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지원에 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례군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구례군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모습. (구례군 제공)

재경담양군향우회 ‘고향방문의 날’ 성료

담양군은 29일 “전남 무정관에서 재경담양군향우회와 관계기관, 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백 재경담양군향우회장을 비롯한 400여 향우와 이병노 담양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정철원 담양군의회의장,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조관훈·박준열·장명영·박은서 군의원, 김종화 담양읍장, 신현기 무정면장, 강순화 참여소통실 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세 번째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환영사, 만찬, 강강술래, 향우 장기 자랑 등으로 채워졌으며 향우회관 건립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선정에 따른 기부금 기탁식과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도 함께했다.



담양군이 지난 28일 무정면 무정관에서 재경담양군향우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담양군 제공)

이병노 군수는 “향상 고향을 잊지 않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향

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향우들의 애환심을 발판 삼아 900여 공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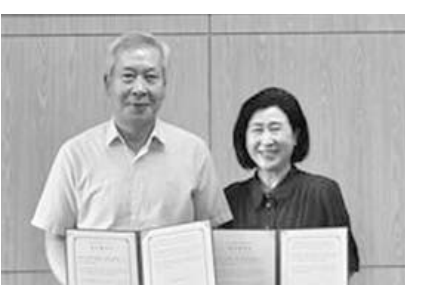
와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사)전남여수수산학융합원-일미래센터, 일자리 활성화 ‘맞손’

교육 참여자 연계 등 취·창업 지원

(사)전남여수수산학융합원은 “최근 사단법인 일미래센터와 전남지역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융합원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인재 확보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 ▲사업 및 교육 참여자 연계 ▲취·창업 지원 등 양 기관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협약 체결 후 양측은 일자리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교류방안에 대한 의



견을 나눴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과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협력 기대가 크다.

정강 전남여수수산학융합원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남여수수산학융합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R&D, 창업지원, 고용 창출 등의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산학융합지구 운영기관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미래센터는 전남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이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양-린츠 국제미디어아트 교류전’

홍보대사에 배우 하정우 위촉

광양시는 29일 “광양-린츠 국제미디어아트 교류전 홍보대사에 배우 겸 화가인 하정우(사진)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우승 총감독은 “하정우의 연기 활동, 그의 화가로서의 예술적 감각은 사람들이 미디어아트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광양시가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아트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예산 확보 ‘동분서주’

오세훈 서울시장·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면담

김한중 장성군수가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김한중(오른쪽)군수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한중 군수는 “하반기에도 장성의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국비 확보와 도농 교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김문태기자

김한중 장성군수가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하반기에도 장성의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국비 확보와 도농 교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김문태기자



광양시와 린츠시가 '건강한 도시를 위한 동맹'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